

## 1차 종계 도태 완료

## ‘모두’를 위한 종계 감축이어야 한다

편집부

지난 3월 27일 드디어 종계 도태 1차 감축사업이 완료됐다.

이번에 도태된 물량은 계육협회 411,691수, 양계협회 34,915수 등 총 446,606수로 집계됐다(생존수 기준). 달성률은 83%. 당초 목표인 538,000수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지난 3월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육계관측에 따르면 종계 감축사업으로 인해 닭고기 공급량이 당초보다 줄어듦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계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육용 종계 감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오는 9월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닭고기 공급량이 감소해 5월과 6월 중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kg당 1,700~1,900대로 전망했다.

종계 사육마리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나 생산성 하락으로 3월 중 병아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6천220만수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4월 중 육계 사육마리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한 7천357만수로 전망했다.

닭고기 공급량이 감소하지만 수요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4월 중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2~14% 상승한 1,800~2,000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자료대로라면 2차 감축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차 도태를 앞두고 이미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비회원사와 일반 종계장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감축효과가 반감되고 비참여업자가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감축사업 시행이 늦어지면서 노계도태를 기피함으로써 환우계군이 발생하는 등 당초 기대한 감축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2차 도태사업의 당위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번 종계 감축 사업은 ‘살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다. 참여의식 부재야말로 이 최후의 몸부림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 누구를 위한 종계 감축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